



‘외로운 마음’ 불심으로 채워 줘야죠

허정희 포교사(왼쪽)가 하나원 원생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다. 허 포교사는 ‘하나원’ 밖에서도 신행활동을 이어가는 불자가 생기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라고 말한다.

“아, 아. 원생여러분, 2시부터 3층 법당에서 법회를 시작합니다. 부처님 이야기에 관심 있는 원생들은 지금 빨리 법당으로 오세요. 우리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9월 19일 일요일 오후 조계종 포교사단 허정희(63) 통일 3팀장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하나원’ 복도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다.

허 포교사는 일요일마다 어김없이 경기도 성남의 ‘하나원’ 본원을 찾는다. 안성에 본원을 둔 ‘하나원’은 국정원 조사를 마친 탈북자들이 2개월간 생활하는 정규 교육기관이다. 늘어난 탈북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정부는 2002년 10월

“부처님은 ‘신’ 하고 무에가 다릅니까?”
“일체중생 개유불성(一切衆生 皆有佛性)이 뭘 뜻이어요?”

사실 이런 질문에 대답을 잘 해야 원생들은 불교의 가르침에 한결음씩 다가갈 수 있게 된다. ‘종교’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가장 쉽게 불법을 전하려면 그들의 궁금증을 자연스럽게 풀어줘야 한다. ‘하나원’ 본원이 생기자마자 탈북자들의 포교활동에 뛰어든다는 허정희 포교사에게는 지금도 이것이 가장 큰 ‘화두’다.

“에 많이 먹었지요. 이 사람들이 워낙 ‘종교’란 것이 없는 체제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개념을 이해하는 데만도 한참 걸려요. 그래도 부처님 말씀 좋은 건 다 알아요.”

데 그냥 무턱대고 글(경전)을 읽으라해도 재미도 없고 증명중증, 이상해요.”

일부 원생들의 불교에 대한 바람과 실망에 대해 허정희 포교사는 “솔직히 나이트 포교사 두세 명이 돌아가면서 나오는 시스템으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가 힘들다”고 토로했다. 노래를 해 볼까, 차트 식으로 된 교재를 만들까, 온갖 공리를 다 했지만 법회 집전하기도 힘에 부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라는 것이다.

프로그램이나 포교 인력 부족 문제가 있지만 이선전 포교사는 다른 시각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타종교는 성직자들이 이곳에 직접 나옵니다. 목사, 신부들이 포교 현장에 있는 거죠. 스님들이요? 여기 ‘절대로’ 안 나오십니다. 포교사들이 전법하는 것과 스님이 법문하는 게 수준이 같습니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님들이 나와 주셔야 합니다.”

‘하나원’ 탈북 동포 전법 현장을 찾아서

탈북여성 180여명 남한 적응 위해 기거
“불법 좋은 건 알지만...종교 개념 없어”
난해한 경전·나이든 포교사 등 ‘답답’
‘믿음’ 이어가도록 불교계가 도와야

부터 성남 본원 운영을 시작했다. 본원에는 현재 20세에서 45세까지의 독신여성 180여 명이 기거하면서 남한 사회 적응을 위해 언어, 컴퓨터 등의 교육을 받고 있다.

방송이 나간 후 ‘자립관’ 13평 남짓한 공간, 탕화가 모셔져 있는 법당으로 서른 명 남짓한 원생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점심 식사 뒤 졸음이 밀려오는 시간이라 그런지 몇몇은 눈을 비비면서 들어와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일곱 번 정도 법당에 꾸준히 나온 진희(가명·38)씨가 허 포교사가 가져온 떡이며 과일을 깨끗한 접시에 옮겨 담고 불전에 놓는 모습에서 제법 불자 태가 났다.

“천수경 독경합니다. 저기 교재 갖다 보세요. 몇 쪽이지요?”

허 팀장과 함께 ‘하나원’을 찾은 포교사단 열불포교 6팀장 이선전(65) 포교사의 목탁 소리에 맞춰 독경이 시작됐다. 서른 명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독경소리가 구절마다 딱딱 맞아떨어진다. 계속해서 원생들이 직접 작성한 발원문 낭독, 반야심경 불독 소리가 낭랑하게 이어졌다.

독경 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 원생들이 평소 궁금해하던 ‘절집 말’에 대해 질문을 쏟아냈다.

실시 처음 포교 활동을 시작한 2002년에는 법당을 찾는 이가 3~4명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고 한다. 허 포교사가 방마다 문을 두드려 모은 불자 수는 이제 35명을 넘어섰다. 만족스럽지는 않아도 절반은 성공한 셈이다.

하나원에서 꾸준히 법회에 참석하다 사회로 나간 영희(가명·36)씨는 불교 대학을 다니며 포교사 고시를 준비할 정도로 신심 깊게 활동하고 있다. 지금은 한달에 한번 꼴로 하나원을 방문, 원생들에게 불법을 전하려고 애쓴다.

허 포교사에게는 영희씨처럼 하나원 밖에서도 신행활동을 이어가는 불자가 생기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다.

허 포교사가 법회를 집전하는 동안 개신교 신자 명희(가명·26)씨는 2층 복도 휴게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명희씨의 말에 따르면, ‘하나원’에는 불교 외에도 개신교와 천주교 단체들이 출입한다. 이 중 개신교 단체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인다. 약 7~8명 정도의 개신교 전도사와 목사들이 주말은 물론 주중에도 수시로 ‘하나원’을 방문, 일주일에 3회 이상 원생들과 얼굴을 마주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원생의 절반 이상인 70여 명이 고정적으로 교회에 나간다. 안성 본원의 경우에는 상주하고 있는 목사까지 있어 아침저녁으로 기도회가 열린다.

“중국에서부터 남한 선교사들이 마음의 의지가 돼 교회 나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 때 남한 사람이 절을 세웠다는 소문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마음마다 있거든요. 노래도 배우고 사진도 찍으면서 외로운 마음을 달래다보면 발길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가지요.”

이직 종교가 없다는 선영(가명·26)씨는 하나원의 시설에는 불만이 없지만 면회가 일체 금지 돼 있어 외부 사람과 접촉하지 못하는 것은 답답하다고 했다.

“아무래도 자주 오는 사람들이 좋죠. 불교 쪽에서도 사람이 온다는 것 정도는 알지만 너무 나이 많은 분들만 오시더군요. 여기 사람들은 거의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은 포대를 만나서 웃 얘기, 화장품 얘기도 하고 싶고 그래요. 나이 드신 분들하곤 그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또 다른 원생 정화(가명·25)씨는 처음 하나원에 들어와서 찾은 곳이 법당이었지만 이제는 다시 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

프로그램이나 포교 인력 부족 문제가 있지만 이선전 포교사는 다른 시각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타종교는 성직자들이 이곳에 직접 나옵니다. 목사, 신부들이 포교 현장에 있는 거죠. 스님들이요? 여기 ‘절대로’ 안 나오십니다. 포교사들이 전법하는 것과 스님이 법문하는 게 수준이 같습니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님들이 나와 주셔야 합니다.”

포교사들의 하루가 끝나는 길, 어스름이 깔려 오는 시간. 법당을 찾았던 원생 네 명이 이른 저녁을 먹고 산책을 나왔다. 그들은 포교사들에게 반배 합장을 하면서 손을 흔들었다.

“다음에 또 오셔야 해요!”

더러는 실랑해서 발길을 돌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불교를 ‘믿어보려고’ 하는 하나원 원생들은 ‘불교’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포교도 포교지만, 이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이 새로운 삶을 사는데 진정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을 허정희 포교사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해 줄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글·사진=김경진 기자



하나원생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선전(가명)·허정희 포교사.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주) 행복만선 Tel. 02)730-0705

10월 20일 출발 (소림사, 백마사, 용문석굴 순례)
₩ 650,000원 (중국비제비, 가이드 기사팀 불포함) 10월 10일 마감

일자	주요 일정
20일	09:35 항공편으로 인천출발 / 북경도착 북경 최대 사찰 담자사 순례 야간 열차로 낙양으로 이동
21일	소림사, 탐림, 백마사, 용문석굴 순례
22일	항공편으로 북경 이동 천안문, 자금성 및 왕부정 거리 관광
23일	만리장성 관광, 옹화궁(라마교사원), 와불사
24일	천진으로 이동 진전페리 승선 / 출발
25일	인천 도착 해산

오화유람선으로 여행 및 순례 (매주 화요일 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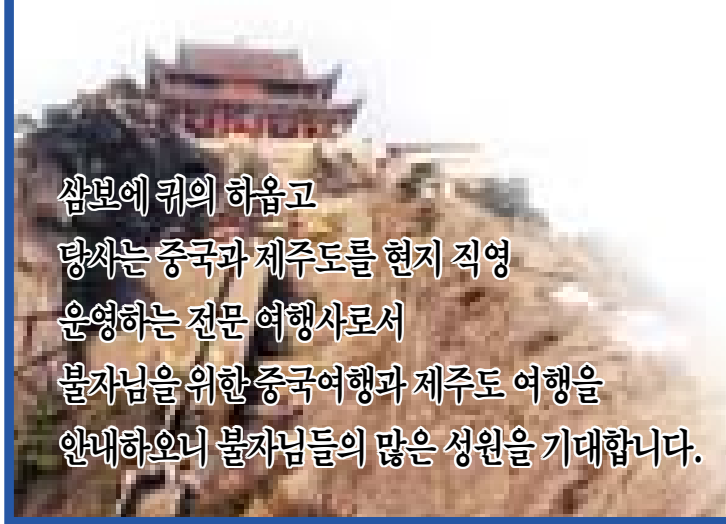
1. 천진, 북경 7일 (와불사, 담자사, 용악궁) ₩ 390,000원
2. 천진, 북경, 낙양 7일 (소림사, 백마사, 용문석굴) ₩ 520,000원
3. 천진, 북경, 오대산 7일 (운강석굴, 와암사, 연통사) ₩ 620,000원

•조건: 10명 이상 출발 가능, 비자비 가이드 기사 팀 불포함

중국 불교 성지 순례

1. 관음도량 보타 낙가산 5일 85만원
2. 지장도량 구화산 황산 5일 85만원
3. 보현도량 아미산 낙산 5일 85만원
4. 문수도량 오대산 운강석굴 5일 80만원
5. 소림사 백마사 용문석굴 5일 80만원
6. 달라이라마 티벳 8일 179만원

호화 유람선 선상에서 수록제 및 소원성취 방생 대법회 가능 (진행 및 인원 상담)



삼보에 귀의 하옵고
당시는 중국과 제주도를 현지 직영
운영하는 전문 여행사로서
불자님을 위한 중국여행과 제주도 여행을
안내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성원을 기대합니다.